

제 162회 일본전문가 초청세미나

주제: 기업의 해외진출과 무역구조의 변화 -한일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강연자: 후쿠오카 마사아키 (도시샤대학 경제학부 교수)

도시샤대학의 경제학부 부교수이자,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객원연구원인 후쿠오카 마사아키 교수의 세미나가 10월 8일 국제대학원 GL룸에서 열렸다. 본 세미나는 '기업의 해외진출과 무역구조의 변화 -한일 섬유산업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후쿠오카 교수는 기업이 해외 진출함으로써 무역구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또한 아베노믹스 이후 엔저 현상이 한국산업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을 본 강연의 목적으로 설명하였다. 일본의 해외 직접 투자 동향을 살펴보면 2007년에서 2008년, 그리고 2011년에 해외 직접 투자가 급증하였는데, 그 배경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리먼 쇼크 등으로 인한 엔고 현상과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발생 등으로 인한 엔고현상이 있었다.

일본 제조업의 직접 투자 동향은 2011년 가장 크게 증가하여 정점을 찍었는데, 일본 섬유산업의 장기적인 동향을 취업자 동향 중심으로 살펴보면, 제조업의 취업자는 1970년대 초반 정점에 달한 후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이는 섬유산업에서도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후쿠오카 교수는 일본 섬유산업의 수출경쟁력과 환율을 나타낸 도표를 제시하며 섬유산업의 수출경쟁력은 환율 변동과 같은 동향을 보이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다시 말해, 엔저일 경우는 수출경쟁력이 향상되지만, 엔고의 경우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국제경쟁력지수는 '+'에서 '-' 사이에 표시되고 1에 가까울수록 수출에 특화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제조업 전반의 국제경쟁력지수가 65년도에는 0에서 배회하다가, 85년을 기점으로 0.2로 상승하여, 그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섬유산업은 65년 매우 높은 수준의 무역특화지수를 보이다가 71년 금태환정지 및 섬유협정 체결 이후 급락하여, 85년 플라자 합의를 기점으로 또다시 급락하였고, 결국 수치가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된다. 즉, 섬유산업은 일본산업 중에서는 예외적인 산업임을 알 수 있다.

일본 섬유산업이 급속히 경쟁력을 상실해 가는 반면, 한국, 대만의 수출경쟁력은 매우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하락하고 있었다. 일본 섬유산업의 해외 직접투자 동향을 살펴보면, 수출 경쟁력이 급속히 저하된 1971년과 1985년 이후에 직접투자가 급증했다. 일본 섬유기업의 직접투자의 동기는 1970년대 한국과 같은 신흥공업국으로는 직접 수출이 불가능하자, 현지에서 생산해서 판매하려는 목적이었고 미국으로는 일본 이외의 나라에서 생산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1980년대에서 1990년대의 직접투자의 목적은 주로 의류산업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일본시장의 확보를 위해 해외진출이 진행되었다.

해외진출 섬유산업의 판매조달 행동을 살펴보면, 판매 부문은 현지에서의 판매액이 가장 크고, 일본에서의 판매(일본 수출)액이 그 다음으로 컸다. 조달 면에서는 일본에서의 조달이 크지만 판매액에는 미치지 못하여 결국, 해외진출은 많았으나 일본으로의 섬유제품 수입이 증가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한국의 경우, 한국 제조업의 취업자와 섬유산업의 취업자 동향에서, 총 고용 증감률은 GDP 성장률과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있으나 1987년 이후 제조업의 고용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섬유산업의 고용은 그 이전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 섬유산업의 직접투자 동향에서는 일본 섬유산업처럼 직접투자가 급증한 현상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일본으로 다시 수출하려고 해외 진출했던 일본과 달리, 한국 섬유산업의 직접투자의 목

적은 한국으로 다시 수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또한 직접투자의 목적은 투자대상지역이 중남미에 집중된 점에서 대미 할당제도에 의한 수출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국 섬유산업의 직접투자 동향을 살펴보면, 71년과 85년에 급격히 상승하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이처럼 급속한 변화는 없었다.

일본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을 알아보기 위해, 산업별 무역 특화 지수를 살펴보면, 섬유, 화학, 식료품 분야에서는 거의 수출 경쟁력 상실한 반면, 수송기계 분야에서는 경쟁력이 향상되었고, 정밀, 일반기계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고, 가전제품 분야에서는 수출 경쟁력이 급격히 하락하였다.

한일무역특화 지수를 비교해보았을 때, 가전제품, 일반기계 분야를 제외하면 한국과 일본의 국제경쟁력 지수는 유사한 동향을 보인다. 이는 산업구조가 비교적 유사하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이런 사실은 엔저가 한국 수출산업에 타격을 주는 증거가 될 수 있으나, 한국의 수출산업은 일본에서 부품 및 원자재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엔저의 이점 및 단점을 좀 더 신중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정리하자면, 일본 섬유산업의 특징은 일본 전체 산업 중에서 엔고 현상으로 인해 일찍부터 수출 경쟁력을 상실한 예외적인 산업이며, 이러한 수출 경쟁력 상실은 대만, 한국의 섬유산업에 비해서도 급속히 진행되었다. 이는 엔고 현상에 따라 일본 기업이 해외 진출한 결과 무역구조가 변화한 것에 기인한다. 또한 아베 노믹스에 의해 엔저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해외 직접투자에 의해 생산거점의 해외 이전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엔저 현상으로 인해 수출이 증가하는 산업은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엔저로 무역 수지가 호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국은 일본에서 부품 및 원자재를 수입하기 때문에 엔저가 한국 기업에 대한 미치는 영향을 일방적으로 단점만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이 점에 유의하면서 조금 더 다각적인 분석이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 질의응답

질문: 일본의 섬유산업의 해외투자가 엔고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면, 다른 산업들도 그러한가?

답변: 물론 엔고 현상이 모든 산업을 해외로 진출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물류, 경제 발전 현황 등 여러 요인들이 맞물려, 해외 진출이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엔고가 계기가 되어 해외진출을 하는 것도 사실이다.

질문: 일본 섬유산업의 장기적인 동향에서 취업자 동향에 대한 내용은 인구의 감소들이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가. 다른 산업과 달리 섬유산업만이 이런 동향을 보였는지, 한국과는 달리 왜 이런 동향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다른 요인들이 있을 것 같다.

답변: 왜 섬유산업만 급격히 해외 진출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임채성 교수님의 말씀대로로 섬유산업은 소비재산업도 아니고, 노동집약적 산업이면서, 한국과 대만에서는 만들 수 없는 의류들을 일본에서는 만들 수 있다는 사실과도 연결될 수 있다. 또한 섬유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해외 진출에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과, 상대적으로 비용도 많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볼 수 있다. 다른 요인으로는 역사적 요인을 생각해볼 수 있다. 전쟁 이전부터 동남아시아, 중국, 조선에 진출했었던 경험이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연구가 더 필요할 듯 하다.